

행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뿐”

스님은 <능엄경>에서 밝힌 문사수 수행법과 성명 생수의 수행법을 함께 묶어서 수행해 보니, 수행조 기에 많은 증험들이 나타나서 하면 할수록 육신이 겪고 있는 병고역난(病苦厄難)이 하나 들쭉 사라지고 마음공부도 깊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마지귀를 찾아내서 수행하는 방법을 기록해 둔 책인 <유가심인록>과 이 안에 기록된 소승 선사의 참선·기공법인 ‘귀복법’을 실제로 수행해 체험을 얻은 수행자는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다. <능엄경> 자체가 어려운 경전인데 개운 조사가 주석할 단 <능엄경>은 기공법을 모르고서는 알 수도, 수행할 수도 없는 비전(秘傳)의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능엄경>을 반야(般若)로만 해석한 것도 이러한 수행법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었다.

“반야는 수행하기 이전의 소식으로 묘유(妙有)한 것이고, 지금 뒤아서 연구하 하는 것은 망진(妄盡)으로 이뤄진 망체(妄體)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남겼지만, 이 경을 후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들을 반야사상으로만 해석해 버린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능엄 수행법을 통해 해탈하신 개운 조사는 ‘이 능엄은 중생의 진무(塵漏)를 벗어나게 하는 수행서이지 반야를 설명한 경전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엄경>의 경문을 이처럼 해석하는 것과 실제 수행법으로 해석한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능엄경> 7권 결단괘칙(結壇軌則)에서 세존이 설한 다음 경문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말세의 사람이 수행도량을 세우고자 하려면 먼저 설산의 대력백우(大力白牛)를 구해야 한다. 그 소는 설산의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나는 비니 향초만을 먹어서 그 똥이 매우 미세한데 그 똥을 구해다가 전단향과 화합해서 결계(結界)하고자 한 단장지면(壇場地面)에 발라야 한다.”

여기서 ‘대력백우’는 우리의 불종자(佛種子)이자 진성(眞性) 즉 성품을 비유한 것인데, 실제 수행법에서는 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력백우’는 그 성품이 몸 안에 있을 때 실제 머무는 진주처(眞住處)를 지적한 것이라 한다. 성원 스님은 이 경문을 ‘소승 선사 어록’의 실제 수행법을 통해 이렇게 증험하였다.

“이 대목은 수행인의 몸 안으로 그 진성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문사수로 살펴서 점차 명궁(命宮: 단전)까지 유도하여 성(性)과 명(命)이 합체하면서 설산의 맑은 물(수행 중 입속에 고이는 침)이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인체 내의 모든 맥(脈)이 소통됩니다. 동시에 체내의 모든 경락(經絡)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차 활성화 되고, 인체 내의 모든 기혈이 가동되면서 몸이 매우 가볍고 경쾌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기혈이 막혀서 혈액순환의 방해 받아 병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성과 명이 합해지는 참나, 우리 몸의 움직임이 급

진전하여 막혔던 모든 기혈을 이 마니보주(摩尼寶珠: 지장보살의 손에 쥐고 있는 구슬)가 뚫고 다니게 되는 감각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성과 명이 합해서 일어난 증험이었다. 이후 만성질환으로 쇠약했던 스님의 몸이 건강체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성품이 나타날 때와 성과 명이 합해될 때 양 눈 사이의 인당혈(印堂穴)에서 번뜩하고 섬광이 나타나면서 입속에 고였던 맑은 침이 위장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뇌성과 같은(우글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성(性)이 명궁에 들어가는 양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당해서 주인공은 이 핵(眞性)을 문사수로 유도하면 몸 안의 모든 경락을 휘젓고 다니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이상이 없으면 입·독맥(任督脈)의 통로를 통해 다니다가 다시 분궁에 돌아와 조용히 쉬곤 합니다. 명과 성이 합해지면 오래도록 잊어버렸던 고향 집을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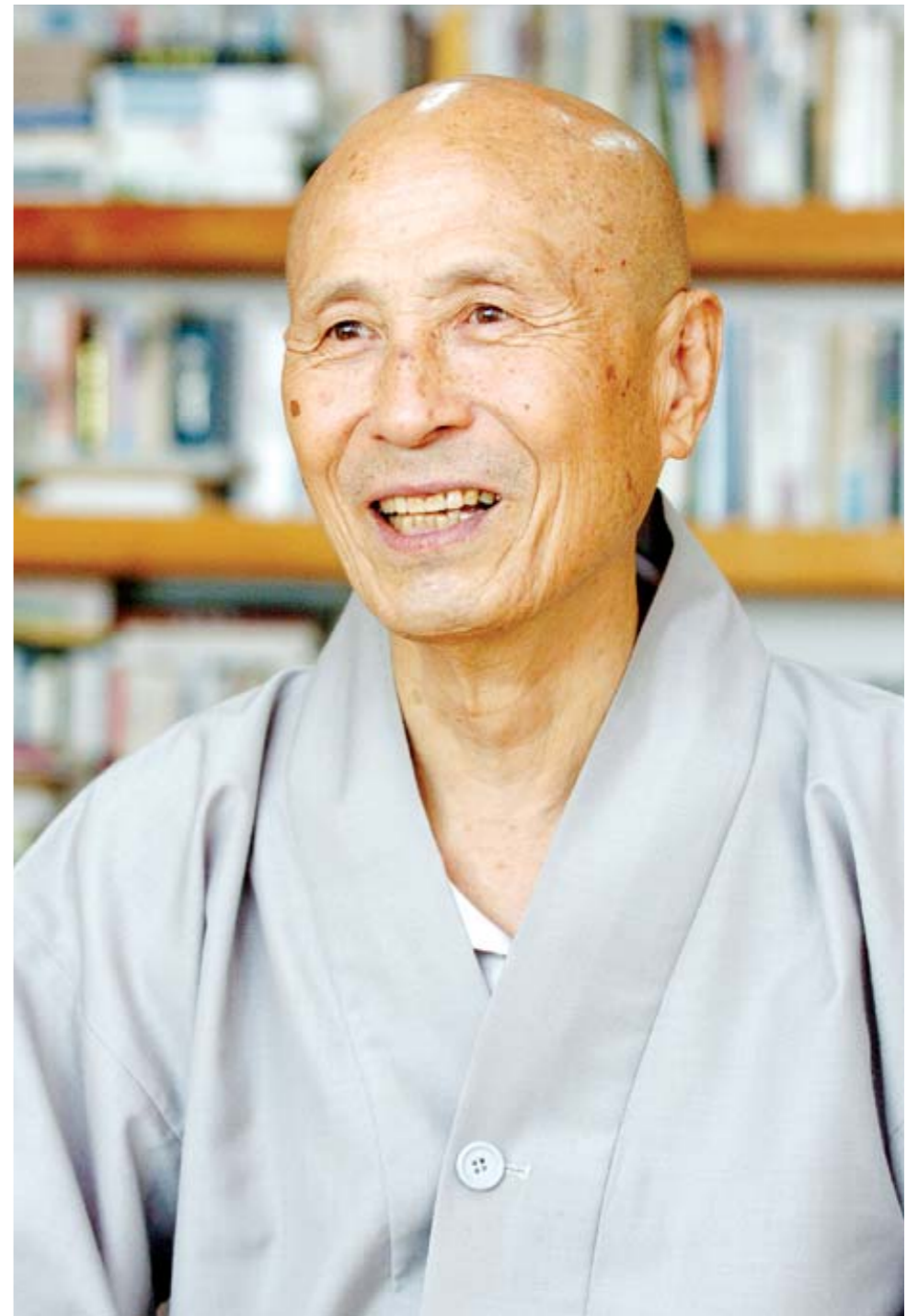
개운 조사의 능엄선은 이처럼 마음(性)과 몸(身)이 하나 되어 이뤄지는 내밀한 수행이기에, 스승 없이 는 탐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개운 조사의 <능엄경>을 접한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아직도 스승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성원 스님이 이러한 개운 조사의 능엄선을 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58년 석굴암에 출가한 이래 30여 년간 종무행정을 보는 바쁜 일과 중에도 기도정진과 간경·참회수행 등을 쉬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나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면서부터 30년간 사원 관리 소임을 맡아 그동안 심혈을 경주하여 사원의 공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행의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독송을 했습니다. 일종식에 좌좌불와로 목숨 걸고 백일간의 관음기도를 할 때는 땀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른 끝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천일동안 <반야심경>을 묵서로 사경하여 인연 닿는 곳에 나눠주면서 지장기도도 하였다. 또 금분(金粉)으로 <금강경>을 2년에 걸쳐 수십 권을 사경하여 제방의 분사와 적멸보궁, 관음기도량 등지를 찾아가서 불전에 올리고 참회기도도 하였다. 최근에는 <법화경> 7권 전집을 금분으로 사경하여 불전에 올려두고 ‘나와 더불어 모든 승려가 세세생생 인신(人身)을 거듭 받아 태어나서 출가사문이 되어 구경(究竟) 성불을 향한 수행정도에서 마장 없이 정진할 수 있기를’ 불·보살님 전에 발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진과 원력이 있었기에 1988년부터는 제방 선원에서 정진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백년의 출가수행을 되돌아 볼 때, 스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막행막식(莫行莫食)하는 파계행과 실점이 없는 말재주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나 글재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거나 행해도 꾸준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월만 낭비합니다. ‘일체하 허공꽃(虛華)이겨늘 무슨 육신이 열매이느냐’는 등 계행을 무시하는 사된 아만심으로는 참된 진리와 스승을 만나기란 요원한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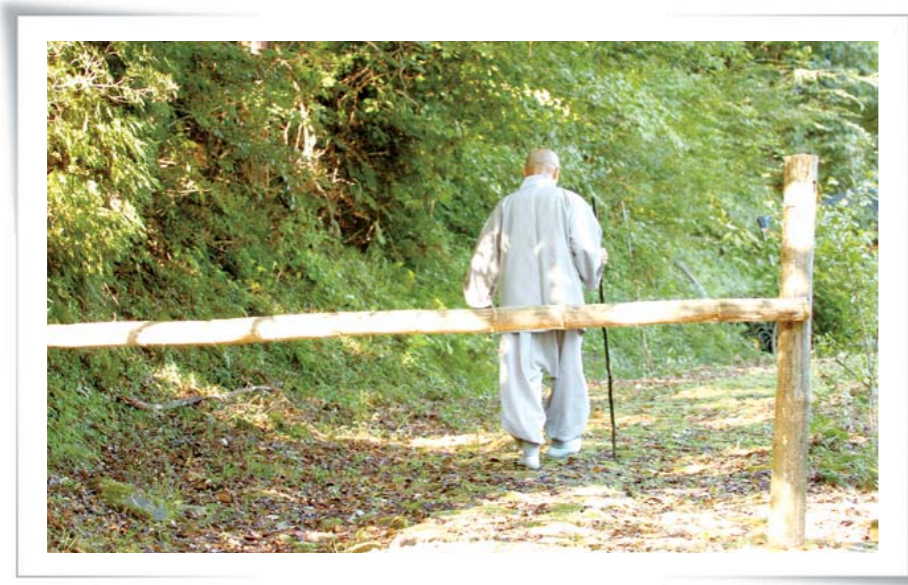
나무는 고요히 쉬고 싶지만 바람이 멎어주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은 선정에 들고 싶지만 지어든 업(業)이 태산 같은데, 이것을 통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성원 스님의 사형인 성철 스님이 생전에 능엄주 독송과 절 수행을 강조했듯이, 업장소멸과 발원은 수행의 토대이다. 기초를 든든히 다진 진솔한 수행은 결코 수행자를 속이지 않는 법이다. 포교와 수행에 각각 최선을 다해 정진해 온 성원 스님은 이제 청산(靑山)에서 푸른 학과 노니는 ‘날마다 좋은 날’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한다.

늦기는 하였으나 청학(靑鶴)에 왔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랴
진중일 푸른 산맥을 대하니 마음 스스로 한가해져
청학선인(靑鶴仙人)을 이에서 보는 것 같구나
구름 흩어지고 비 그치지 푸른 산예와 다름 없더라.

마음을 비워서 모든 물욕과 사심이 텅텅 비워지고 대상도 공허한 경지에서 크게 깨달아 달관하게 되면 악심과 선심도 없어지고 일체의 시비·분별심도 사라져 무심의 경지에서 세상일을 초탈하게 된다. 깨달음의 빛을 숨긴 채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성원 스님을 보고 개운 조사의 가풍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요즘도 지리산 묘향대에서 종종 모습을 나타내는 개운 조사처럼, 스님 역시 살아있는 전설로 능엄선의 가풍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하며 망운산을 내려왔다.

남해=김성우 객원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마음과 몸이 합해지는 참나 막혔던 기혈 순환 관절통·검버섯 사라지고 ‘無心の 경지’ 도달



沉香과 白檀의 순수함으로 사용하시는 이의 價値와 品格을 더욱 높여 드릴 것입니다.

**순수 침향만을 사용한
명향심공침향**

“포효의 향”이라고 불리우는沉香沉香은 예로부터 국왕과 고급관료만이 사용할 정도로 매우 귀한 향으로 그 藥材的 效能과 향으로서의 價値는 이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沉香의 고귀한 느낌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명향심공침향에 다른 향재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침향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장성되어 담았습니다.

이향 침향의 깊고 순수한 맛을 명향심공침향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성분: 침향, 님베피

**부드럽고 달콤한 백단의 향
명향일광백단**

일광백단은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 있던 白檀만을 사용한 천연향으로 여러분께 진정한 백단의 맛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성분: 백단, 님베피

**일광단향
부드러운 백단의 향**

본 향은 순수 백단만을 사용하여 만든 대나무향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하시기때 편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제품규격 - 280mm(약 35분 연소)
대: 약 140개 (2종류), 중: 약 140개, 소: 약 35개

화사한 수련의 향기 - 화의시 花の詩

언뜻의 향기는 영원한 시의 노래처럼..

백단 30%와 로즈, 바이올렛, 재래는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화사한 수련의 향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백단을 기본으로 한 꽃가루의 달콤함과 화사한 향기가 꽃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온화함과 몽롱함을 느낄 수 있는 선향입니다.

본 향은 일본향당과 한국의 인태향당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선향입니다.

제품규격 - 향: 33x26x30mm(약 90분 연소)/55g
- 중: 44x15x33mm(약 25분 연소)/40g
- 단: 65x15x28mm(약 25분 연소)/40g

수련

100% 천연 침향, 백단을 사용하여 건강에 유익하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향은 100%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장상을 맑게 하고 상신을 맑아 주어 인체에 해가 없는 유익한 향으로서 사찰과 거실, 공부방 또는 명상, 요가 등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규격 - 향: 27x23x23mm(약 90분 연소)/남: 37x15x32mm(약 25분 연소)